

제주 무사증 중단되니 中관광객 97% 감소

지난해 7만118명... 올해 1922명으로 '뚝' 떨어져 "현재 무사증 입국 재개 여부 불투명한 상황"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무사증 입국 제도'가 일시 중단된 이후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무사증 제도가 중단된 지난달 4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한 달 동안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만92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2%

(11만6216명) 감소했다.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만 보면 1922명으로 전년 대비 97.3%(7만118명)나 줄었다.
2002년 처음 도입된 무사증 입국 제도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이 관광 또는 방문 목적 등으로 입국하고자 하

는 경우 30일에 한해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무사증 입국 제도는 그동안 제주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얻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 1월 29일 제주자치도는 정부에 무사증 입국 제도의 일시 중단을 요구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무사증 입국이 언제 재개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면서 "해외 현지 홍보 사무소와 유관기관, 관광사업체 등을

통해 무사증 중단 결정이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제주국제공항 도착 승객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타 지역의 국내선 출발 지점에서도 발열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온정의 손길로 위기 넘는다" 각계각층 '마스크 기부' 행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제주도민들의 온정이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 지역사회확산방지 비상대책위원회(회장 전문수 제주도세마을회장)'는 지난 3일 회의를 통해 마스크 기부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상대책위 소속 단체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마스크를 모아 거동 불편으로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고령 어르신 3000명(1인당 10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이외 부산광역시 소재 아동용 마스크 온라인쇼핑몰 '폼마폼마'는 지난달 26일 마스크 699개를 보내 저소득 아동 가정에 전달해달라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탁했다.
또 제주과학문화협회(이사장 김창진)도 지난 2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마스크 1000개를 기부했다.

제주어류양식수협조합(조합장 한용선)은 지난 3일 제주 3번 확진자가 발생한 제주도 조천읍 함덕리 주민을 위해 마스크 1180장을 전달했다.

이 밖에도 제주도 마을기업 '함께하는 그날 협동조합(이사장 이정미)'은 지난달 13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와 낮은울타리어린이집, 에서원, 제주도 장애인발달지원센터에 전달해달라며 200만원 상당의 어린이용 마스크를 제주도 자원봉사센터에 기탁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힘든 시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보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은범기자



무사증 중단 한 달... 황량한 제주국제공항.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무사증 제도가 일시 중단된 지 한 달째인 4일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탑승장은 관광객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쓸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상국기자

코로나19에 교통유발부담금 이행 점검도 중단

제주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1분기까지 일시 중지 관광객 급감 등 경영난 심화로 인한 업계 의견 반영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사회 감염 우려와 경영난이 심각해지면서 교통유발부담금 감축 이행 현장점검이 일시 중단된다.
제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 단계(심각) 격상에 따른 추가 확산 저지 및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감축 이행 현장점검을 3월을 포함 1분기까지 일시적으로 중지한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현장점검 중지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 및 도민 이용객이 대폭 감소한데다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업체(기관)로부터 감축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른 것이다. 관광호텔 등을 중심으로 한 업계에서는 관광객 급감과 도민 이용 기피 등으로 상황이 심각한 만큼 교통유발부담금 감축 이행 등을 유예해 달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차원에서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보다 자가용 이용을 해야

는 점을 감안하면 교통량 감축활동 점검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일시 중지하는 현장점검 항목은 전체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조건 9개 중에서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승용차 부제 운행(2부제, 5부제(요일제), 10부제) ▷환경친화적 주차구획 운영 3가지 등이다. 9개 항목 중 나머지 6개 항목은 서면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올해 2월말 현재 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현황은 2027동에 3416건을 고지, 총 59억원이 부과된 상태다. 지난해 12월 말 감축신청 현황은 154동에 감면예정액은 16억원으로, 감면 반영시 43억원의 부과액 예정이다.
이윤형기자 yhle@ihalla.com

헬스케어타운에 '족부 중점 병원' 생긴다

JDC·연세건우병원 입주 협약 연간 외래 환자 '국내 최대'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에 국내 최대 족부 중점 병원이 설립될 예정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4일 문대림 JDC 이사장과 박의현 연세건우병원 병원장 간 '제주헬스케어타운 활성화와 의료서비스센터 내 입주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작년 11월 연세건우병원이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병원 설립을 위한 입주의향서(LOI)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됐으며, 두 기관은 양질의 의료 환경을 제주에 구현하고 의료 관광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로 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연세건우병원

은 발과 발목, 무릎, 고관절 등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국내 최대 족부 중점병원이다. 연간 외래환자는 약 7만5000명이고, 연간 수술건수도 6000건에 달하며 전국에서 고르게 환자가 찾아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무지외반증의 경우 전국 수술환자 4명 중 1명이 연세건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무지외반증은 엄지 발가락이 새끼 발가락쪽으로 기울어져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병원 내에 족부 분야 전문 의료진은 국내 최대 규모인 5명으로 병원 전체 의료진은 정형외과 의료진 9명을 포함해 총 11명이다.
연세건우병원은 헬스케어타운내에 설립하는 의료서비스센터에 우선 입주해 병원을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자체적으로 헬스케어타운 내 메디컬 스트리트에 병원을 신축할 계획이다.
고대모기자 bigroad@ihalla.com

올해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 '귀덕리'

대통령직속 균형위 어제 발표 3년간 추진... 국비 지원 사업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가 정부가 지원하는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4일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를 포함해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27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는 4년, 농어촌 지역은 3년 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 당 국비 지원액은 약 30억 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 원이다.
국비 지원율은 안전, 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은 80%, 나머지 사업은 70%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 및 역량강화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지원된다. 부미현기자

페페트병 재활용 힘 합친다 개발공사·제주인 수거 협약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비영리단체인 '제주인 사회적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사회공헌사업으로 지난 2일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수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와 상관없이 매일 배출이 가능한 도내 재활용도움센터 53개소(제주시 37개소·서귀포시 16개소)에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을

설치했으며, 제주인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수거하고 있다.
이처럼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수거하고 있는 것은 도민들이 꼼꼼히 분리배출한 투명 페트병이 카시트, 의류용장성품 등 고품질 재생원료로 실용성 있게 재활용되기 위해서는 타 유색 플라스틱 및 이물질 등과 혼합되지 않기 위한 별도수거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별도 수거된 페페트병은 도내 재활용업체에서 2차 선별을 거친후 도외 재활용업체로 넘어가며 이후 도외업체는 작게 분쇄해 섬유 제조업체로 판매하고 있다. 고대모기자

불에 타지않는

준불연 스티로폼 셀보드

제주총판 그랜드 OPEN

시형성적서 보유
ISO 9001, ISO 14001 특허증 보유

흑연 EPS보드 연소시험

연소 전 발화 3초후 발화 5초후 연소 후

셀보드(SHIELDBOARD)와 S보드 연소시험

연소 전 발화 1분후 5분후 표면탄소화층 연소 후
표면 탄소화 화염을 지지, 수축과 변형 없음 수축과 변형 없음

셀보드의 특징

준불연 제품, 열경화성제품, 열전도율 0.034, 적은흡수율, 우수한 단열성, 뛰어난 가성비, 효율적인 보온성능, 환경친화성

기존 보온비드법 시공과 동일 600*1200으로 시공 간편

셀보드 제주총판 우영개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호근로 63
전화 739-8118 팩스 739-9228, 010-6337-3047 메일주소 : wy9724@naver.com